

# 땅과 물과 하늘을 찾아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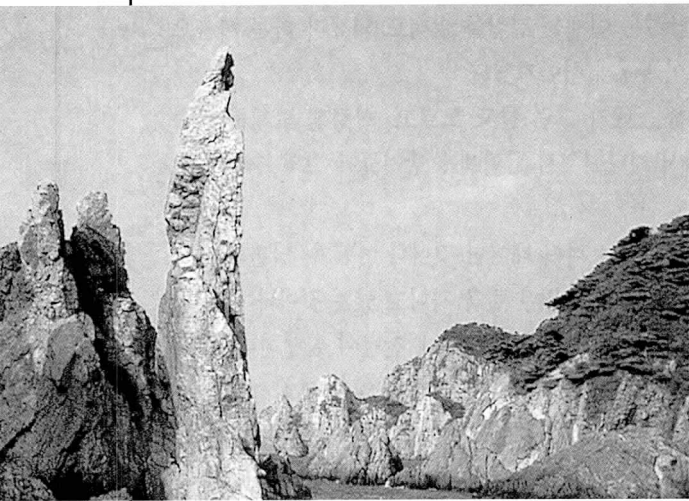
이경식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우 주 삼라만상과 자연환경의 이치는 생각할수록 오묘하다. 대개 땅이 솟아 산이 되고 물은 흘러 강이 되며, 흙의 뜨거움과 물의 차가움 속에서 모든 생명은 잉태된다. 사람의 생명도 궁극적으로는 그와 다르지 않다.

땅과 물, 신선한 공기가 지구를 구성

하는 3대 요소인 것도 그 까닭이다. 더욱이 전 국토의 70% 이상이 산과 계곡인 한반도에 사는 우리에게 산과 물은 분명 삶의 근원이요 생활의 터전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인의 뉘이 담겨 역사가 숨쉬는 곳이 산이며 삼



면으로 트인 망망대해는 한국인의 옹혼한 기상을 펴는 앞마당이다.

산과 바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의 샘이 되었고, 마음의 고향으로 간직돼 있다.

그래서 우리들의 국립공원도 이 산과 바다 위에 넉넉하게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 이 아름다운 지구가 극심한 자연훼손과 환경파괴의 오염으로 중병을 앓고 있다. 전 세계적인 인구증가, 도시화 및 산업화 추세는 하나뿐인 지구의 자정능력을 상실시켜 곳곳에서 '환경종말론' 마저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 오존층 파괴에 따른 인체의 피해와 생태계 파괴현상,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 현상, 야생 동식물 남획과 각종 개발행위에 따른 생태계의 균형상실, 산업화에 수반되는 유해 폐기물의 급증과 불법유출에 따른 환경오염 등이 그것이다.

이제 우리는 죽어 가는 자연환경을 살려야 하고 무엇보다도 우선 흙의 생명성과 생산성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흙은 자연 속에서 인간의 삶을 유지시켜 주는 절대적인 요소이다. 흙을 등한시하고 산림을 훼손하며 환경을 파괴한데서 오는 인위적인 재앙의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날 북한의 기아현상이다.

북한은 지난 30여년간 식량증산을 한다는 명목으로 전국적으로 이른바 다락밭을 조성하고 연료채취를 위해 많은 산림을 파괴했다. 이들 훼손지는 대개 급한 경사지에 초지 형태로 방치된 것이어서 큰 비가 오면 흘러내리는 토사량이 녹화된 산림에서 보다 엄청나기 마련이다. 북한측은 그들의 식량난을 단순한 자연재해 탓





으로 돌리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 그 식량위기를 야기한 수해가 바로 산림훼손지가 늘어남에 따라 집중호우 때 막대한 토사가 농경지로 흘러내려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바로 인간이 부른 재앙인 것이다.

이는 또한 오늘날 환경문제가 곧 경제문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외국의 연구(미국 과학저널 “네이처” 최근호)에 따르면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은 돈으로 환산했을 때 연간 33억조 달러에 달하며 이는 인간의 경제활동을 통해 생산하는 가치의 2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과학적인 근거야 어떻든 기후의 조절력과 토양의 생산력 등이 인간에게 베푸는 가치는 과거에는 경제학자들조차 산정을 시도한 적이 없는데 이런 연구는 환경파괴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오늘의 환경문제는 결국 인간의 의식문제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인간은 어떤 눈으로 자연을 바라봐야 하는가를 냉철히

자문해야 한다.

과학문명의 눈부신 발전이나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사회구조에서 인간의 영원한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대한 이 자연환경, 땅과 물과 하늘(공기)은 특정인이나 특정 계층의 사유물이 아니다.

인류의 폐부(肺腑)이며 삶의 현장이기도 한 자연은 한번 훼손되면 당대에는 복원될 수 없다.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포클레인으로 산등성이 하나 깎는데는 한 달도 안 걸리지만 흙을 쌓아 둔덕 하나를 제대로 만들려면 1백년은 더 걸린다. 자연에 가한 상처는 이처럼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땅은 우리 모두의 스승이다. 땅에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온갖 지혜가 잠겨있다. 신토불이(身土不二)라는 말이 있다. 자연 속에서 자연을 의지해 살아온 우리 선조들은 무엇보다 땅의 지혜를 알고 그 안에서 조화롭게 공존하는 삶을 살아왔다. 이제 우리는 이 천혜의 자원의 땅과 물과 공기를 청정하게 보존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국립공원협회 회원들의 책무인 것이다.●

